

주한미군 환경범죄 미국이 책임져라!

- 한미공동조사단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을 포함시키고 직접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미국 책임으로 원상회복과 피해배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미국 정부가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합니다.

미군 때문에 못 살겠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을 이 땅을 떠나라!

60여년 전 점령군으로 이 땅에 진주한 미군은 지금까지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수립과 평양 점령을 노리는 전쟁연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제 무기를 강매하여 미국 군수산업의 배를 불리고 있으며, 19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에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미군은 엽기적인 강간 뿐만 아니라 택시강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각종 미군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을 부르는 섬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군은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오로지 자국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부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이 미군 쓰레기 장인가?

고엽제, 석면, 폐유, 맹독성 화학물질, 핵무기 사고까지....



2011.5.27. 한겨레 만평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www.peaceone.org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번지 2층, 02-711-7293, spark946@hanmail.net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전국 미군기지 환경오염 심각!

퇴역 미군 증언 잇달아 터져나와!
고엽제, 독성 화학물질에 이어 핵무기 사고까지...
암 발생 등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 칠곡 캠프 캐롤

“고엽제 등 500드럼 이상 묻었다”(퇴역 미군)
2003년 삼성물산 조사: 지하수에서 다이옥신
검출 (먹는 물 기준치 30배 초과)
칠곡군 지하수 사용중지 결정.

■ 부천 캠프 머서

“화학물질 수백 갤런 매립”(퇴역 미군)
지하수에서 발암물질(TCE, PCE) 검출

■ 부평 캠프 마켓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1년) : 독성물질
폴리염화비페닐을 한국처리업자 통해 처리,
2009년 환경부 2차 환경기초조사 : 맹독성
발암물질(TCE, PCE)검출 확인

■ 화성 매항리사격장

불발탄 미제거 반환, 토양에서 기준치 34배의
납 등 중금속 오염 심각.

■ 춘천 캠프 페이지

“1973년까지 고엽작전, 미군들이 고엽제와 제
초제를 삽과 커피캔 등으로 살포, 1972년에는
핵무기 사고도 있었다.”(퇴역 미군)
오염(토양 기름오염, 기준치 100배) 치유 문제
로 기지반환 지연 중

■ 서울 용산기지

2000년 미 군속, 포르말린 독극물 한강 방류
2001년 녹사평역 기름 유출(현재까지 계속됨.)

■ 부산 캠프 하야리아

석면 오염 '기준치 700배'
부산 미 55 보급창에도 독극물 매립

■ 의정부 캠프 카일

4.8m 두께 기름층 발견

■ 군산 미군기지

2005년, 2007년, 2011년 기름, 농수로 유출,
2km 떨어진 새만금 방조제까지 기름띠,

■ 대구 캠프 워커

석면 오염 의혹

■ DMZ 일대

알려진 것보다 50배 많은 고엽제 살포

■ 보령, 인천 등

미군 유류저장소 주변 주민들의 경우 암 발생
율이 평균보다 4~5배 높아



은폐, 축소, 시간끌기 무책임한 미군!

실수아닌, 고의적인 조직적 범죄!
독극물 방류범은 처벌은 커녕 승진?!
환경오염 치유비용 배상 거부!
형식적 공동조사로 시간끌며 잊혀지길 기다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은 미군 개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미군기지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군은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인 미군이 주도하여 형식적인 한미 공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축소, 은폐, 시간끌기를 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했던 맥팔랜드(미 군속)은 처벌은 커녕 승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은 한미 공동조사가 이뤄졌지만 미국의 배상 거부로 2010년까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 37억여원을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일부 오염이 밝혀지더라도 한미SOFA 규정을 핑계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중금속 오염이 심각했던 매항리 미군 폭격장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를 거부했던 것이 그 사례 입니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만 최소 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 혈세로 미군이 책임져야 할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